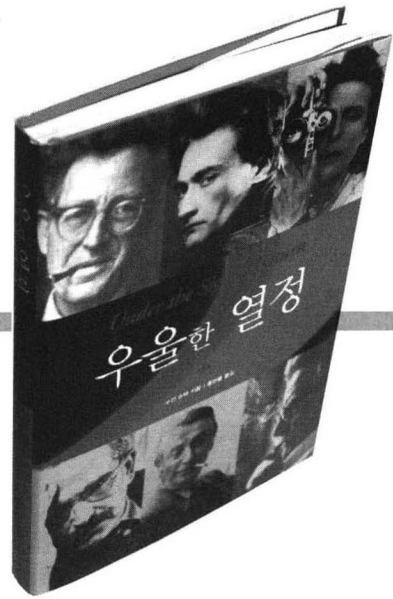


버려진 변방의 예술에 대한 관심, 복원 그리고 구출

시울 김형필 편집장

《우울한 열정》 수전 손택 지음 | 홍한별 옮김 | 262쪽 | 값 16,000원



차분히 정리해도 시원찮을 세밀이 철지난 늦더위마냥 여전히 뜨겁고 짜증스럽게 느껴진다. 싫든 좋든, 황우석이라고 하는 뇌관 속에 우리 모두는 어느새 피아가 가려져 텅버거리고 있다. 문맥을 '완전' 상실한 '썰'의 범람은 무엇이 과학적 진실이며 실체인지 규명하길 더없이 더디게 하고, 집단적 광기의 모습마저 드리운다.

“광기 자체는 사고, 역사의 일부분이며, 역사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는 수전 손택의 말처럼, 현재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상황은 우리 사회 내부의 문화·역사에 의해 정의되는 것일 터. 어쩌면 이같은 상황은 좀더 성숙한 사회적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끊어 터져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우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전 손택의 에세이집 《우울한 열정》에는 ‘광기로 빛은 천재적 예술에 대한 송덕’이 물밑에 깔려 있다. 이런 사실을 뒤로 한 채 연말연시를 지루하게 달구는 반지성적인 ‘이상 과열’을 떠올린 것은, 《우울한 열정》에서 보듯 동시대에 광기로 규정된 열정이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어쩌면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의사결정의 극단성과 혼돈을 우리 사회의 가치로 재정립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다.

동시대가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광기라는 이름으로 정신병동에 격리한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곳곳에 널려 있다. 그러한 광기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다. 손택의 말처럼 “광기의 경계는 주류(대다수)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으로 주류가 귀 기울이는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주류와 달리 뚜렷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주류 삶의 방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광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기로 규정되는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진지하

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용인할 필요가 없으며 억눌러야 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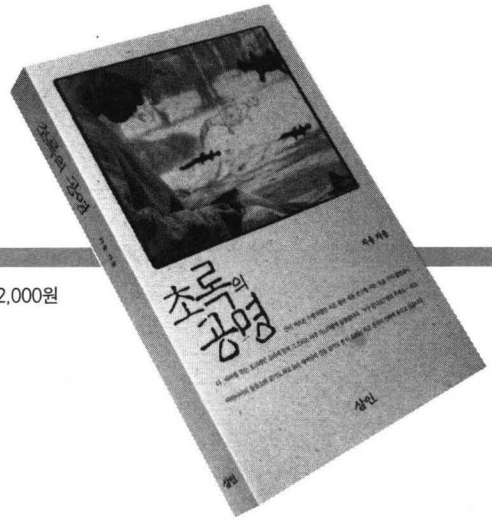
하지만 수전 손택은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모든 광기가 규정되는 토대를 (우리의) “사고 역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울한 열정》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버려진 변방의 예술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복원하려 하고, 아울러 동시대 주류가 그들의 상식과 진지함으로 ‘광기’로 규정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한 우울함과 고통어린 절망, 그리고 소외된 것을 구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재성과 광기의 차이가 갖는 단 하나의 진실, 즉 ‘사회화의 조건이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수결의 폭력성이 그 안에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 광기나 천재성은 매한가지로 “사고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것으로 포용할 가치를 지닌다. 하물며 타인의 의견에 대한 예의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맹목적인 대한민국의 이상 과열을 보며, 나는 굳이 볼테르를 떠올리지 않고 수전 손택의 폴 굿맨에 대한 슬픔에 찬 송사를 떠올려 본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시를 내놓고, 서로의 광기와 그릇된 소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고 나름대로 시민의식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슬퍼할 것이다.” *******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말하다

삼인 최낙영_편집주간

《초록의 공명》 지울 지음 | 322쪽 | 값 12,000원



100일 단식 이후 정리한 글들을 책으로 출간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울 스님을 만난 것은 지난 9월 초였다. 아직 늦더위가 남아 있는 꽤 더운 날이었다. 그의 처소는 기차역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야 할 만큼 도시 외곽에 있었다. LP가스 배달집 곁에 딸린 연립주택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막연한 안타까움과 함께 세속적인 궁금함이 계속 일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무엇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책을 묶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부질없는 생각을 지우듯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꼼꼼히 정리된 원고를 내어 놓으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무언가 쑥스러운 듯했다. 문득, 그를 일러 백지처럼 '순정'한 사람이라고 썼던 어떤 시민단체 사람의 글이 떠올랐다.

《초록의 공명》은 천성산 터널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단식했던 지울 스님의 눈물겨운 기록이다. 이 책에는 한 자연인이 끝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얻은 내면의 고백과 수행자가 온몸으로 화두를 던지는 결연함이 함께 있다. 단식하는 동안의 심경을 담은 일기와 자연에 대한 단상과 강연 원고, 외부 인사들이 기고한 글과 신문기사 등 여러 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은 형식과 형식, 행과 행의 사이를 오직 진실이라는 한 가지로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진실은 바로 사랑이다.

그가 청와대 앞으로 거처를 옮겨 세 번째 단식을 시작했을 무렵, '지울이 숨어서 음식을 먹고 있다'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경찰서장과 관계자들에게 분개하면서도 그는 골목 안 어느 집 창틀을 타고 올라간 나팔꽃이 보고 싶어 아침마다 그 집을 찾아간

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70일의 허기를 견디어 내고난 후, 제가 가져가야 할 절망이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처소에서 만난 1주일 후 지울 스님을 다시 만났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앞으로 더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제 작은 등으로 업어 키웠다'는 친동생에게 책의 진행을 맡겼다. 그리고 예의 그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많은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석 달이 넘도록 연락이 끊긴 후,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지울 스님의 근황을 접했다. 경기도 근처 사찰에서 80일 동안 단식중이라는 소식이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책에 '바라건대 천성산과 함께한 모든 인연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거두어 주소서...' 라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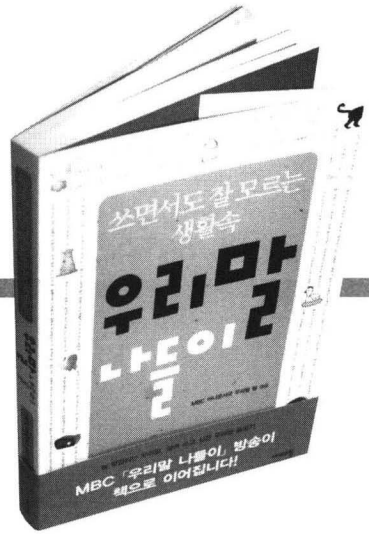
지난 11월 말 《초록의 공명》이 출간된 후 지금까지 나는 이 책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아직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의 원고가 오랫동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처음 원고를 건네받아 읽었을 때 한 번에 계속 읽지 못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 읽어야 했을까. 왜 나는 그 원고를 읽으면서 자꾸 눈물을 글썽였을까.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많은 독자와 편집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좋은 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일관된 형식도, 전문가적인 깊은 견해도, 새로운 지식도 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순정하게 마음을 울린다. 낮은 목소리로 불편하게. **최낙영**

“‘기스’, 하면 안되죠. ‘흠집’, 해야죠”

시대의창 김이수_주간

《쓰면서도 잘 모르는 생활 속 우리말 나들이》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 팀 엮음 | 287쪽 | 값 9,800원



풍경 하나

어느 날 퇴근길, MBC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말 나들이~” ... 진행자의 정감어린 목소리에 빠져든다. 처음 듣는 순간부터 웬지 이 프로그램에 마음이 끌린다. 꼭 두 해 전이다.

그로부터 라디오 방송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까지 ‘다시 보기’로 챙겨들었다. 그도 여의치 않을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동안 쌓인 자료를 읽어 보았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우리말 나들이>와 무척 친해졌다. 편집자인 내게 무척 유익한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냈다.

풍경 둘

어느 날, 인터넷의 바다를 떠돌다가 문득 화가 치밀었다. 신문이나 잡지를 펴들다가도 짜증이 일었다. 새삼스럽게 우리말 ‘파괴’와 ‘오용’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렇다면 나는? 자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부끄러웠다. 십수 년 동안 책을 만들어 온 편집자라고 하기에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그 순간 <우리말 나들이>가 떠올랐다. 맞아, 그걸 책으로 이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덩달아 우리말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거야... 이런 당연한 생각을 왜 이제야 하게 되었을까?

풍경 셋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내가 처음이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우리말 나들이> 팀장과 몇 번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니 팀장이 바뀌어 있었다. 알고 보니, 오래 전부터 내 귀에 친근하게 익어 온 목소리의 주인공(강영은 아나운서)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판 계약을 맺고부터는 일사천리였다. 티격태격 지지고 북으며 ‘우리

말 나들이’와 진하게(?) 사귀면서 책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새삼 느낀 바 하나—사소한 일이든 거창한 일이든 일이란 결국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 끝을 맺는구나. 그 ‘열정’의 주인공은 바로 강영은 아나운서다.

풍경 넷

책이 무사히(?) 나오고 나서 며칠 뒤, 시대의창에서 우리말 팀을 초대하여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서로 덕담을 주거나 받거나 화기애애...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만 “... 곁에 ‘기스’가 나면 안 되겠지요.” 아차 싶었는데, 바로 그 순간 박해진 아나운서(<우리말 나들이> 라디오 진행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기스, 하면 안 되죠. 흠집, 해야죠.” 정말이지 <우리말 나들이> 팀답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여지없이 빠-, ‘빨간불’이다. 이제는 나 혼자서도 수시로 빨간불을 켜곤 한다.

<우리말 나들이>와의 사귄, 유쾌하고 소중한 추억이다. 그 추억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

세계적 공저자 10명과의 판권교섭기

평사리 대표 홍석근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권터 그라스 외 지음 | 이승협 옮김 | 290쪽 | 값 12,000원



“앗, 이 책이 좋겠다.”

10년 만에 귀국해서 서울 살림을 시작하려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책꽂이에 막무가내로 꽂혀있는 책 중에서 친구가 꺼내준 한 권을 받아보고 터진 환호성이다. 바로 이거야. 두껍지 않고 저자 ‘뽕뽕’ 하고 시기에 맞는 책이란 것이 바로 이거야.

이 책은 21세기 첫해에 프랜시스 후쿠야마, 율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권터 그라스, 피에르 부르디외 등 당대의 석학들이 독일 정론주간지 <디 차이트>에 기고한 글들을 엮었다. 이념적 지향이 다른 이들이 세계화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면서, 그 대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책에는 민주화 이후를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검색 해보니, 아직 미출간 도서였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 왜, 큰 출판사들에서 이런 책을 놓쳤을까? 나온 지 5년이 넘었으니, 기획자 눈에 잡혔어도 벌써 잡힐 만한 책인데 말이다. 아마도 독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사회 분야 책이라는 점, 그리고 기획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독일어 원서라는 점, 결정적으로는 필자가 여러 명이어서 출판권 교섭이 쉽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어쩌면 이런 점들이 ‘평사리’와 같은 소규모 출판사에게 열려진 ‘틈새’가 아닐까. 외서의 출판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할 자금이 없고, 독자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멋진 디자인과 편집을 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리고 대형 매장의 판매대에 보란 듯이 책을 깔 만한 영업력을 가지지 못한, 소규모 출판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빈 공간 말이다.

출간 결정은 쉬웠지만 갈 길은 멀었다. 열 명이 넘는 저자들과 어떻게 판권 교섭을 해 나갈 것인가. 원서를 냈던 외국출판사에서 저자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준다면 일이 수월할 것 같았

다. 그러나 통상 국내 출판사와 외국 저자 사이에 출판 계약을 담당하는 국내의 에이전트들은 최소 업무로 최대 성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저자가 많고 계약이 복잡한 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에이전트 수수료가 저자 수에 따라 올라가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 출판사가 이 책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에이전트의 역할에 달려 있었다. 다행히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신뢰를 쌓아온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있었다. 판권 의뢰를 보냈다. 답은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맡았던 <디 차이트>의 기자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주가 지나 이 독일 기자로부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저자들에 대한 연락처를 보내왔다. 저작료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봤다.

여기까지는 일이 순조로웠다. 세계적인 석학들이라 개인 저작권 관리자들을 두고 있어서 접촉은 일단 수월했다. 문제는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신문에 기고한 글들이 아니라, 저작권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였다. 다시 말해서 필자들과 직접 접촉을 해야만 했다. 캄캄했다. 이런 유명인들과 연락이 쉽게 될까.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 교환도 한몫했지만, 담당 에이전트의 끈질긴 뚝심도 만만치 않았다. 거의 3개월 사이에 답들이 거의 도착했다. 저작료를 수표로 보내달라는 후쿠야마의 메일을 받았을 때는 실실 웃음까지 나왔다.

책이 서점에서 독자를 기다리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다. 소규모 출판사들이 겪는 우여곡절은 책에 안타까움으로 배어 있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헤쳐 나가는 힘이 바로 출판사의 기본기라고 생각한다. **▲**